

the
MONO
TONES

‘더 모노톤즈’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현재를 현재답게 노래하는 밴드

지난 봄, 영국 브라이턴에서 열린 K팝 쇼케이스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2017.’
칼 군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K팝이 아닌, ‘한국 로큰롤’의 열정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밴드가 있었다.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상의
주인공이었던 ‘더 모노톤즈(The monotonse)’를 만났다.

글 조은아 객원기자(echo@techm.kr) 사진 성혜련



차승우, 하선형, 최욱노, 훈조(왼쪽부터)

Q 우선 더 모노톤즈 소개부터 해주시죠.

(차승우부터 반시계 방향 순서)저는 밴드의 연장자이자
기타를 맡고 있는 차승우, 노래를 맡고 있는 훈조, 드럼을
치고 있는 최욱노라고 합니다. 저는 팀의 막내인 베이스
치는 하선형입니다.

Q 영국에서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무대에서 느꼈던 반응은 어땠나요?

차승우 | 요즘 영국 로컬 밴드 분위기는 ‘시크’하고 ‘쿨’한
게 대세인데, 그런 와중에서 저희 ‘핫’한 모습을 보여줘서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콘서트홀에서 했던 저녁공연이 특
히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영국 현지에서 이런 음악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골라간 커버곡이 더 잼(The
Jam)의 ‘히트웨이브(Heatwave)’와 펄프(Pulp)의 ‘디스코
2000(Disco 2000)’인데다 오래된 곡들이거든요. 요즘
영국 밴드 스타일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정적이예요. 그
런데 저희는 옛날 노래로 뛰어다니니까 젊은이들은 신기
해하는 분위기였고,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거
지!’ 하는 분위기여서 음악을 즐기는 폭이 넓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Q 참신한 록밴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의 밴드가 결성되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차승우 | 전 20대에 ‘노브레인’으로 시작해서 30대에 ‘문
사이너스’에서 활동했어요. 공교롭게도 문사이너스가 해
산을 하게 되면서 음악 낭인 생활을 하다가 새롭게 시작
을 하고 싶어 멤버를 모으게 됐는데 지금의 모습을 갖추
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메인 보컬이 탈퇴를 하는
상황도 있었고 베이스리스트도 교체됐죠. 이런 저런 일이
많다보니 데뷔앨범도 늦게 나온 편이에요. 3년차 시점이
었던 2015년에야 데뷔 앨범이 나왔어요.

Q 메인보컬인 훈조의 합류도 그 우여곡절의 하나인가요?

차승우 | 맞아요. 흥대 ‘썬’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해온 덕
에 아는 뮤지션은 많았는데 관성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새로운 얼굴을 찾다가 지푸라기 잡는 시점으로 중고 악기
거래 사이트에 있는 구인구직란에 ‘보컬 멤버 찾는다’를
내걸었는데, 이 친구가 낚이게 됐죠.

최욱노 | 그 사이트가 직장인들 동호회하는 밴드를 찾는
느낌의 사이트인데, 이 동네 상식상 그런 곳에는 멤버 구
인을 안올리거든요.

차승우 |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마음에 차는 멤버가 없
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내온 데모 mp3 파일을 처음
듣고, ‘아 친구다’하는 느낌이 왔어요.

훈조 | 사실 다른 오디션은 다 떨어졌어요. 해외에서 계속
살아서 한국을 잘 몰랐었죠.

Q 각자 하고 싶은 음악적 특성이 다들 다른 것 같은데요.

차승우 | 각자 취향이 다르고, 해왔던 것이 다르기는 한데
그런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로 나오면 그게
멋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결성했을 때부터 지금
까지 특정 장르에 천착하지 말자는 것이 모토였어요. 각
자 다른 방식의 사운드가 균형 있게 융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도 모호해요. 로
큰롤이라는 범주 안에 있기는 하지만, 요새 음악이라는
장르가 파괴가 되면서 멀티 장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요. 한 곡 안에서도 여러 장르 안에 있는 개성이 드러
날 수도 있어요. 앨범 안에서도 다채로운 소리가 있었
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환각적이고 사이키델릭한 노
래가 있을 수도 있고, 달달한 러브송이 있을 수도 있죠. 사
운드적 가능성은 열어놓고 싶습니다.

Q 그렇다면, 원래 하고 싶었던 음악은 어떤 건가요?

최욱노 | 20대에 하고 싶었던 건 로큰롤! 클럽에서 하는
달려가는 느낌의 로큰롤이었는데 더 모노톤즈에서는 폭
넓은 드러밍을 요구받아요. 경계를 두지 말고 여러 가지
해보자는 건데 어렵지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즉흥 연주
같은 것도 잘 안했는데 시립미술관에서의 경험이 컸죠.

차승우 | 시립미술관 공연은 당시 보컬이 구해지지 않았
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컬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공연



기타
차승우

이미 트렌디하다고 인식된 것은 '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행하는 새로운 사운드에는 흥미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음악적인 취향을 계속 한 데 모으려는 욕심을 재조합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편이죠.

을 해보자 싶었고, 그게 나름대로 고무적으로 밴드에 작용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초반에는 펑크룩으로 시작했다가 다음 밴드에서는 복고적인 1950~60년대 음악 영향을 받은 로큰롤 사운드를 했어요. 지금 새 밴드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해왔던 음악들을 총망라하고 새 시대 느낌까지 덧붙이는 것인데, 복고와 모던을 잘 버무린 음악을 하고 싶어요.

훈조 | 전 예전에는 블루스 음악을 정말 좋아했는데, 블루스를 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리스너 입장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선형 | 기본적으로는 밴드 음악이 중심인데, 지금 형들

과 모여서 음악을 하다 보니 기초적인 것을 채워나가면서 해나가야겠다 싶어요. 조금씩 알게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음악을 좀 더 배워나간 다음에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음악적 발상은 보통 어디서 얻는 편인가요? 가사를 보면, 현실을 반영한다거나 이 시대의 시대정신 같은 것을 담아낸 느낌이 짙어요. '글로리어스 데이(Glorious day)'는 김수영 시인의 시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들었는데요.

차승우 | 시집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인데, 시집 외에도 여러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요즘은 영화인데, 영화를 보다보면 특정 대사나 상황 같은 게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시대정신은 사실 개인적인 투영이 더 많아요. 불만 토로나 자기 신세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훈조가 가사를 쓴 '워치맨'이 그런 편인데, 세월호 사고 당시의 생각을 담은 가사였어요.

훈조 | '워치맨'은 승우 형이 가사를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노래에서 느낀 점을 사운드에 맞게 썼어요. 거창한 단어보다는 현재의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 음반을 다시 듣다가 처음 느낀 건데요. '제로'에 포탈 사이트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현대적인 단어가 섞여져 있다



드럼
최육노

는 게 좋더라구요.

차승우 | 이미 트렌디하다고 인식된 것은 '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행하는 새로운 사운드에는 흥미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음악적인 취향을 계속 한 데 모으려는 욕심을 재조합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편이죠. 현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밴드를 하는 것 같아요.

훈조 |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음악의 절반 이상이 TV나 예능을 통해 리메이크 되서 소비되는

게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TV에 나가서 리메이크 하는 밴드도 아니다보니 우리에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운드들의 조합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적 공통점을 꼽자면 '온고지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차승우 | 각자의 취향들이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Q 더 모노톤즈만의 사운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성을 추구하다보니 한 곡을 꼽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 부른 노래 중에 마음에 드는 노래를 꼽는다면 어떤 곡이 있나요?

차승우 | 저는 앨범명과 같은 제목의 '인 투더 나잇(in to the night)'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훈조 | 아까도 저희 음악에는 규정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처럼 4명으로 구축된 사운드 시스템을

“ 인간과 컴퓨터와 소통하는 체계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사는 인간이 들려주는 음악과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음악은 다르지 않을까요? ”



보컬
훈조

대부분 밴드 형태죠. 여기에 새로운 소리가 더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특히 시간이나 악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지난해 9월에 낸 싱글 곡 '여름의 끝'은 6분이 넘는 곡이에요. 바로크 시대에 쓰였던 피아노 원형인 건반악기를 활용했죠. 2분이든 3분이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15분짜리도 만들 수 있죠. 일반적인 노래가 갖추고 있는 형식도 없어요. 전에는 이런 부분이 더 모노톤즈의 색깔 같

고 느꼈는데 최근 앨범을 다시 들어보니 '제로'나 '윈터송'도 모노톤즈스럽지 않나 싶었어요. 제로는 빛과 어둠의 역동적인 부분을 가사 안에서 보여주면서 극적이었고, 윈터송은 이펙트 있는 소리를 썼어요. 평범한 발라드 곡에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를 곡 내내 입혀냈죠. 실로폰 소리도 들어가고, 재미난 부분이 많아요. 로큰롤 음악을 살짝 비틀어내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새로운 재료를 넣어보고 있죠.



베이스
하선형

하선형 | 좋아하는 색깔이 매일 바뀌는데 요즘은 '제로'가 제일 좋아요.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느낌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구요.

Q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음악도 나오잖아요. 음악인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음악, 어떻게 보시나요?

차승우 | 음악인으로 20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최근에 느낀 생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20세기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세기가 뭔지 잘 모르겠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미학적

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계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원터송'에 입혔던 신경을 굽는 소리 같은 것은 사실 컴퓨터가 하기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예술 활동은 인간이 표현하는 고유의 분야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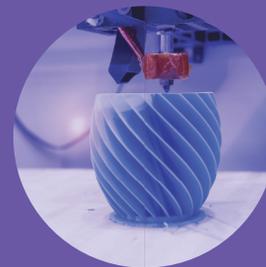
훈조 | 오늘 읽은 기사에서 인공지능이 업무 수행을 위해 스스로 새로운 언어를 개발했다는 내용을 봤어요. 인공지능은 이제 비틀즈 곡을 입력시켜서 히트곡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비틀즈 같은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결국 인간과 컴퓨터와 소통하는 체계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사는 인간이 들려주는 음악과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음악은 다르지 않을까요? ❶

더 모노톤즈 멤버들의 연주 장면



ZOOM IN CT (CULTURE TECHNOLOGY)

훈민정음 창제 원리로 중국어 학습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의 가고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 플랫폼도 있다. 실제 화재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몰입체험형 가상현실(VR) 기술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성과들을 모았다.



- 코스코이 - 3D프린팅 출력서비스 플랫폼 '3TING'
- 칼라프로젝트 - '오색중국어'
- 메타포트 - 몰입체험형 VR콘텐츠